수행 통해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 부처님 오신 뜻

부산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

진제 스님은 ...

1934년 경남 남해에서 출생해 1954년 해인사에서 출가해 석우 선사를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57년 통도사에서 구족계 수지 후 제방 수선안거했다. 1967년 향곡 선사로부터 법을 인가받아 석가여래부촉법 제79법손으로 정법맥을 이었다. 1971년 부산 해운정사를 창건한 스님은 선학원 이사장, 문경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 등을 역임했다. 2004년 대종사에 추서된 스님은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이며, 해운정사 금모선원 ·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 ·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이다.

법어집으로는 〈옛 못에서 달을 건진다〉 〈돌사람 크게 웃네〉 〈선 백문백답〉 〈석인은 물을 긷고 목녀는 꽃을 따네〉 등이 있다.

진리의 눈 열려야 부처님 '살림살이' 알 수 있어

'화두' 시비분별 떠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공부

부산 해운대는 서울의 강남 버금가는 신천지이다. 해운대 백사장 인근 동백섬에는 2005년 제13차 APEC 정상회담 회의장으로 사용됐던 누리마루가 세워졌다. 그 주위로는 해안가를 따라 마천루가 펼쳐져 있다. 중생의 욕망으로 깊은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는 해운대 번화가와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위치하며 진속일여(眞俗一如)의 가르침을 보이는 도량이 있다. 해운대 장산 자락에 자리한 부산 해운정사가 그곳이다. 해운정사는 진제 스님이 참선 대중화를 위해 1971년 창건한 사찰이다.

5월 21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어느 날,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식으로 꼽히는 진제 스님을 만나기 위해 해운정사를 찾았다.

해운정사에 이르니 해운대 시가지가 굽어보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맑은 날에는 일본 대마도까지 보인다고 한다.) 얼마 오르지도 않은 곳인데 높지도 낮지도 않은 장산 중턱에 위치한 곳에서의 시원한 풍광은 나그네에게 신이하기만 했다. 풍광을 만끽하려는 순간 지척에서 처소를 나선 진제 스님이 보였다. 스님은 나그네를 본 체 만 체 도량을 둘러보고 있었다.

"오전 일찍 찾아뵌다고만 말씀드렸는데, 설마 (나그네가 도착한) '때'를 알고 나오신 것일까?"

기자라는 직업 때문인지 나그네는 의심이 많다. 신 · 해 · 행 · 증의 첫째가 믿음이라는데 일단 의심부터 하는 통에 나그네에게 한 소식 할 시절이 있을까 싶다.

부처님은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에서 "들숨과 날숨의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했다. 나그네는 어느 선지식에게서 들은 기억이 있다. 호흡이 들고 나는 '때'를 바로 알면 세상의 모든 '때'를 알게 된다고.

시자스님에게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금장실(金杖室)에서 진제 스님을 기다렸다. 금장은 부처님 법을 상징하는 금빛 주장자를 뜻한다.

스님께 삼배를 올렸다. 그리고 여쭸다.

부처님오신날의 참 뜻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오신 참 뜻은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 같이 참된 대지혜를 갖추고 있음을 알리러 오셨습니다. 중생은 탐 · 진 · 치 삼독과 '나'라는 허세로 번뇌가 그칠 날이 없어요. 자신의 본성을 모르고 허상을 쫓는 겁니다. 부처님은 '참 나'를 잊고 사는 중생에게 각자가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이 갖춰져 있으니 수행을 통해 자신이 부처임을 깨달으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이 몸뚱이는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면 스러질 것인데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父母未生前 本來面目)' 하는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참 나'를 바로 보면 '참 나'는 아주 청정하고 맑아 티끌만큼의 번뇌와 허물도 없습니다. 오직 지혜와 자비뿐이지요.

부처님이 처음 태어나서 동서남북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고 게송을 읊은 것도 자기의 참모습을 몸소 보이며, 그것이 부처님의 참모습일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참 모습임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참 나'를 바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의 자기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래야 '참 나'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화두 들고 있을 여건이 안된다는 탓을 하지 말고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서 화두를 잡으세요. 그러면 그 순간만큼이라도 세상 모든 시비분별에서 떠나게 됩니다. 시비분별에서 멀어질수록 크고 밝은 지혜가 계발되지요. 이것이야 말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공부입니다.

혼자 화두만 들고 있으면 됩니까?

-화두를 든다고 참선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앉고 눕고 걷고 일하고 돌아다니는 등 언제나 화두를 들어야 합니다. 참선이 일상생활에서 무르익어야 해요. 늘 화두가 들려 있으면 온갖 분별심과 망상이 사라지고 나와 삼라만상이 오로지 간절한 화두 한 생각으로 꽉 찬 상태인 일념삼매(一念三昧)가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마음의 갈등이 없어지고 동시에 사리를 정확하게 판단케 됩니다. 근심걱정이 모두 사라지게 되지요. 진리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진리의 눈이 열리려면 바른 진리를 아는 스승을 만나 바른 수행법을 익혀야 합니다. 스승이 없으면 자기 현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서울을 향하던 사람이 대전, 대구까지 와놓고 서울입네 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화두를 들고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바른 눈(正眼)이 열립니

재단법인 한국불교 원광원

원로원장 법민 승정원장 법원
총무원장 성우 보선 종의회의장 법등
총무부장 대광 규정부장 혜오 교육부장 법인 포교부장 일도
문화부장 지정 재무부장 혜안 사회부장 동인
비구니회장 혜지 비구니부회장 혜암 비구니총무부장 지연
법사단단장 은성 법사단부단장 도경
서울종무원정 은성 경기남부종무원장 혜안 인천종무원장 혜암 충남종무원장 지정
충북종무원장 예원 전남종무원장 경진 경북종무원장 일도 경남종무원장 지경
강원도종무원장 도봉
총무국장 송암 규정국장 도명 교육국장 청송 사회국장 화담
포교국장 정관 재무국장 금산 중앙신도회장 묘성 중앙신도회총무 지명

<재단법인 원광원 이사진>
이사장 : 원광 선진 상임이사 : 동초
이사 : 송암 이사 : 도명 이사 : 청송 이사 : 화담 이사 : 정관
감사 : 금산 감사 : 법등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18번지 전화 031)593-8200, 593-9502 / 팩스 031)593-9503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